

낙산사 공중 사리탑 복장직물의 조형특성 및 시기감정

조 효 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Characteristics of Textiles Found in the Pagoda at *Naksan Temple*

Hyo-Sook Cho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투고일: 2009. 6. 4, 심사(수정)일: 2009. 7. 7, 게재확정일: 2009. 7. 15)

ABSTRACT

On April 28th of 2006, a set of Buddha's reliquary was excavated from the pagoda in Nacsan Temple. According to the record, the relics were put in the pagoda in the 18th year of King SookJong in the Chosun Dynasty (1692). The present paper examines ten pieces of wrapping clothes covering reliquary found in the pagoda. They are especially precious data in the history of textiles because they were blocked off from outside and was preserved in good condition with vivid colors still remaining after more than 300 years. Of the ten pieces of wrapping cloth, five were double-layered and the other five were single-layered. They include 15 pieces of silk fabric but, excluding repeated use of the same silk fabric, the total of 11 pieces of silk fabric were examined. All 11 kinds of silk fabric were patterned, 9 of which were Satin and the other 2 were Twill. Of the 9 Satin pieces, 8 pieces were 5-end satin which had the ground of 5-end warp satin with the figure of 5-end weft satin. The remaining 1 Satin piece were more splendid with prominent figures by using warp and weft of different colors. The 2 Twill pieces used twill weave-the ground was 3-end warp twill and the figures were 5-end weft twill. Both of the Twill pieces were weaved with character patterns, partly using wrapped gold thread as supplementary weft. The patterns of 11 pieces of silk fabric include flower, dragon/phoenix, cloud, and geometric patterns. Five were flower patterns, three were dragon/phoenix patterns, two were geometric pattern, and one was cloud pattern. In addition, various treasure patterns, character patterns were utilized as supplementary patterns. The flower and phoenix patterns reflect characteristics of the textiles of the 17th century whereas check pattern and cloud pattern were very unique.

Key words: Nacsan-Temple(낙산사), textile from stone pagoda(탑복장직물), wrapping cloth(보자기), reliquary(사리합), pattern(무늬), weave structure(조직)

I. 서론

2005년 낙산사의 큰 화재로 인하여 해수관음상 아래쪽에 위치한 공중사리탑(空中舍利塔) 석재에 손상이 보여서 2006년 이 부분들을 보존 작업하던 중, 2006년 4월 28일 탑신석 상면 중앙의 원형 사리공 내에서 사리장엄구 일습이 발견되었다. 사리는 작은 유리 사리호에 들어 있었으며 사리호는 금합, 은합, 청동함에 차례로 납입되었고 각각의 합들이 보자기로 싸여 있었다. 이 사리장엄구의 가장 외합인 청동합 내에는 한지에 주서(朱書)한 연기(緣紀)가 들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과 천하태평을 기원하였고, 강희(康熙) 31년이라는 절대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제 19대 숙종 18년(1692)에 납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리합을 쓴 보자기들은 탑 속에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보관되었으므로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고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귀중한 유물 자료이다. 물론 조선시대의 직물유물들은 조선의 독특한 분묘제도로 인하여 여러 분묘에서 출토보석이 대량 발굴되었으므로 이 사리합 보자기와 비슷한 연대인 17세기의 직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직물은 매우 귀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직물사 분야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까지 발굴된 조선시대의 불복장품 중에는 흑석사의 아미타불에서 나온 보자기¹⁾를 비롯하여 해인사의 범보전 비로자나불 내의 사호를 쓴 보자기와 후령동 속 직물을 쓴 보자기²⁾ 등 여러 사례가 발굴되었지만 이처럼 4합으로 모셔진 사리장엄구의 일습이 손상 없이 원형 그대로 발굴된 사례는 처음이므로 불복장의 사리장엄을 납입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리장엄구에 사용된 보자기는 모두 11점이며 사리호를 쓴 보자기 1점, 금합을 쓴 보자기 2점, 은합을 쓴 보자기 4점, 은합 밑에 은합을 꺾어놓는데 사용한 보자기 3점, 동합을 쓴 보자기 1점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가장 바깥에 노출된 청동합을 쓴 보자기만 심하게 손상되었고 나머지 10점의 보자기는 매우

상태가 좋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자기의 상태 및 보자기에 시문된 무늬의 조형적 특징을 정리하고 근접한 시기의 다른 직물유물들과 비교한 후 이를 통하여 직물의 시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실의 종류와 직물의 조직을 조사하여 당시에 사용되었던 직물의 명칭과 조직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보자기의 상태

사리장엄구는 모두 11점의 겹 혹은 홀으로 만든 견직물 보자기에 싸여 있었다. 가장 바깥에 노출된 청동합을 쓴 보자기만 많이 삭아서 부서졌고 색상이 탈색된 상태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단 청동합의 뚜껑 한쪽이 찌그러진 상태이므로 청동합 바로 안쪽에 들어 있는 은합을 쓴 보자기 4점 중에 바깥쪽에 쓴 순서대로 탈색 현상이 많이 보인다. 가장 외측 2점의 보자기는 뚜껑의 찌그러진 공간을 통하여 빛이 들어온 부분만 탈색 현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 1점은 약간의 탈색 현상이 보이고 가장 안쪽의 보자기는 탈색현상이 안 보인다. 물론 은합 내부의 금합과 사리호를 쓴 보자기는 탈색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탈색 현상은 특히 푸른색 계통이 많이 사라졌다.

본 단원에서는 삭아 부서진 청동합 보자기를 제외한 보자기 10점의 보자기를 분석하였다. 사리병을 쓴 보자기 1점은 홀으로 되었으며, 금합을 쓴 보자기 2점 중에 한 점은 겹보자기, 은합을 쓴 보자기 4점은 모두 겹보자기이며, 은합을 받친 보자기 3점은 모두 홀보자기이다. 즉 겹보자기가 5점, 홀보자기가 5점이므로 직물 편은 모두 15점이 되는데 모두 문직물이다. 이중에 동일한 직물이 반복해서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11 종류의 다양한 무늬가 시문된 견직물이 조사되었다. 보자기의 크기는 <표 1>에서와 같이 바깥쪽에 쓴 것이 큰 편이며 은합을 쓴 보자기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자기 겹쪽의 한쪽 모서리에 가느다란 끈이 달려 있다.

무늬의 유형은 중심무늬를 기준으로 꽃무늬, 용·봉황무늬, 구름무늬, 기하무늬의 4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11종류의 무늬 중에서 꽃무늬 유형으로 구분된 것이 5점으로 가장 많고, 용·봉황무늬의 유형이 3점, 기하무늬가 2점, 구름무늬가 1점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각종 보배무늬(寶紋)들이 꽃무늬, 용·봉황무늬, 기하무늬 등의 보조무늬로 사용되었고 회자, 만자의 문자무늬도 직금시에 사용되었다.

Ⅲ. 직물 무늬의 조형성과 시대성

인간은 무늬를 넣어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구도 충족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무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물에 나타난 무늬들은 당시 사람들의

〈표 1〉 보자기의 상태

명칭	보자기크기(가로×세로/mm)	끈크기(가로×세로/mm)	색상	조직	겉감무늬 종류	안감무늬 종류
사리호보1(홀)	185×185	16×298	색동	(겉)수자직, 능직, (안)수자직	격자무늬 보배무늬, 기하무늬, 꽃과실무늬	
금합보1(겹)	163×163	9×281	(겉)심초록 (안)연갈	(겉)수자직 (안)수자직	원형봉황, 사합어의 보배무늬 (특경·생황·은정·서각·연환·반장)	연꽃과 넝쿨무늬, 보배무늬(쌍서각 등)
금합보2(홀)	222×228	15×405	유록색	수자직	수국·모란·규화	
은합보1(겹)	252×250	25×545	(겉)갈색 (안)고동	(겉)수자직 (안)수자직	연꽃넝쿨(보배없음)	만자문, 보배무늬 (방승·산호·여의·전보)
은합보2(겹)	303×295	25×610	(겉)색동 (안)연갈	(겉)수자직, 능직, (안)수자직	격자무늬 보배무늬, 기하무늬, 꽃과실무늬 사리호보1과 같음	수국·모란·규화 금합보2 겉감과 같음
은합보3(겹)	300×300	28×550	(겉)청색 (안)연갈	(겉)능직, 중조직 (안)수자직	구름(해) 회자·만자직금	연꽃과 넝쿨무늬, 보배무늬(쌍서각 등) 금합보1 안감과 같음
은합보4(겹)	310×310	끈탈락	(겉)심초록 (안)연갈	(겉)수자직 (안)수자직	원형봉황, 사합어의, 보배무늬(특경·생황·은정·서각·연환·반장) 금합보 1 겉감과 같음	용과 보상화 질지화 (연꽃·동백·국화·모란) 보배무늬 (생황·귀갑·전보·금정·은정·보주·보선·만자)
은합고임1(홀)	205×205	15×402	심초록	능직, 중조직	봉황 사양화 (매화·동백·모란·석류) 회자 직금	
은합(홀)고임2	342×338	29×565	연두	수자직	연꽃넝쿨과 보배무늬(전보, 방승, 산호, 보주, 서각, 금정, 은정, 여의)	
은합고임3(홀)	223×217	15×400	옥색	수자직	매화 불교팔길상무늬(반장·해나·보개·보산·쌍어·법륜) 보배무늬 (쌍서각·여의·금정·은정)	
청동합보	겹		연갈	수자직	연꽃무늬로 추정되나 전체적으로 삭아서 부서짐	

생각과 감정이 이입되고 정착되어 온 산 증거라 할 수 있으며 무늬 하나하나에서 당시의 생각과 염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본 단원에서는 숙종 18년(1692)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납입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리 장엄구에 사용한 직물 무늬의 조형특성을 정리하고, 다른 출토복식의 직물무늬와 비교하여 무늬의 시기 감정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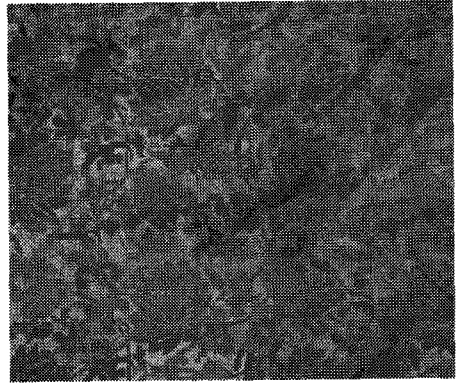
1. 꽃무늬

11종류의 무늬 중에 꽃무늬 유형은 5 종류로 가장 많은데 그 중에 연꽃무늬가 3종류이며 그 외에 매화무늬 1종, 수국, 모란 등의 사양화무늬 1종이 된다. 그외에 봉황이나 용과 함께 시문되어 꽃무늬 유형에 넣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종류의 가지형[折枝形]의 꽃무늬도 보여 이를 합하면 꽃무늬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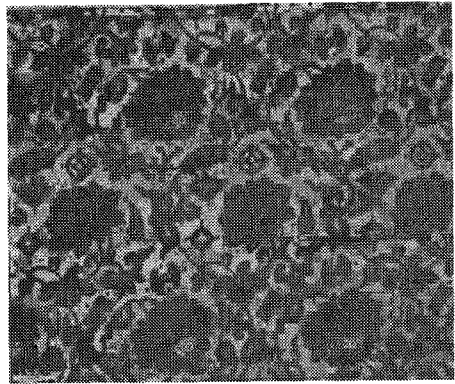
연꽃무늬는 은합을 쓴 보자기(은합보 1)의 걸감과 금합을 쓴 보자기(금합보 1)와 은합을 쓴 보자기(은합보 3)의 안감, 은합고임용 보자기 등 4곳에 3종류의 연꽃무늬가 사용되었다(2점은 동일한 무늬임). 연꽃이 불교의 영생 사상과 함께 고귀함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직물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특히 16세기의 출토 직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무늬이다. 보자기에 시문된 연꽃무늬들은 조선 17세기의 대표적인 연꽃무늬들과 유사한 조형성을 보인다. 즉 연밥이 화려하게 묘사된 보상화풍의 연꽃과 단순화한 측면형의 연꽃을 교대로 배열하고 그 사이에 넝쿨이 연결되었으며 넝쿨에는 연잎과 연밥이 시문되어 사실감을 더하였다. 단 <그림 1>에서와 같이 여백에 보배 무늬가 없이 연꽃넝쿨만을 배열한 것도 있으며, <그림 2>에서와 같이 여백에 전보, 방승, 산호, 보주, 서각, 금정, 은정, 여의 등의 8종류의 보배무늬를 넣어 충전감을 강화한 것도 있다.

17세기 직물무늬의 특징 중에 하나는 16세기까지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연꽃무늬가 점차 줄어들고 다양한 꽃들이 등장한 점이다.³⁾ 이 유물에서도 매화무늬, 모란무늬, 규화, 동백, 국화 등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무늬들이 자주 나타나며 그 조형성도 유사하여 17세기 무렵에 사용되었던 직물이었음을 확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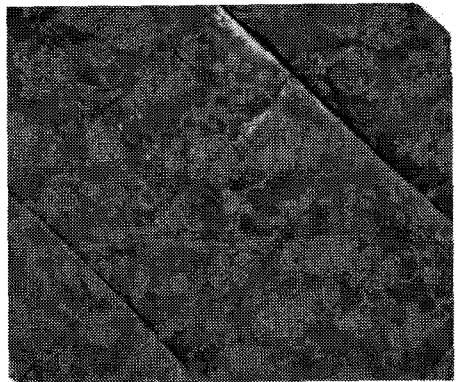
단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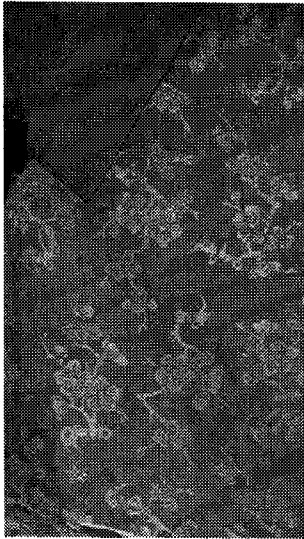
<그림 1> 은합보 1 걸 연꽃 넝쿨무늬, 낙산사 소장



<그림 2> 은합고임용2 홀 연꽃 넝쿨, 보배무늬, 낙산사 소장



<그림 3> 은합고임용3 매화보배무늬, 낙산사 소장



〈그림 4〉 김확부인
동래정씨저고리 매화무늬,
경기도박물관소장



〈그림 5〉 은합보2 안 사양화무늬,
낙산사 소장

매화무늬는 은합고임용 보자기에 시문되었다. 〈그림 3〉과 같이 굵은 가지에 활짝 핀 정면형의 매화와 봉우리들이 소담하게 달려있고 여백에는 반장, 해나, 보개, 보산, 쌍어, 법륜 등의 불교의 팔 길상무늬와 쌍서각, 여의, 금정, 은정 등의 일반 보배무늬가 시문되어 종교적인 의미를 더하였다. 〈그림 4〉는 17세기에 사망한 김확 부인 동래정씨(1567-1631)의 저고리에 시문된 매화무늬인데 보배무늬 없이 매화만 배열하였지만 가지와 꽃의 조형성이 유사하다.⁴⁾

금합을 쓴 보자기(금합보2)의 무늬도 독특한데 〈그림 5〉와 같이 수국, 모란, 규화(백일홍), 석류의 사양화가 회화풍으로 도안되었다. 17세기에는 이와 같은 사양화무늬가 유행하는데 사계절을 대표하는 꽃들을 도안하여 무늬화 하였으며 이는 출토복식에서도 눈에 띄는 중요한 현상이다.⁵⁾

2. 용 · 봉황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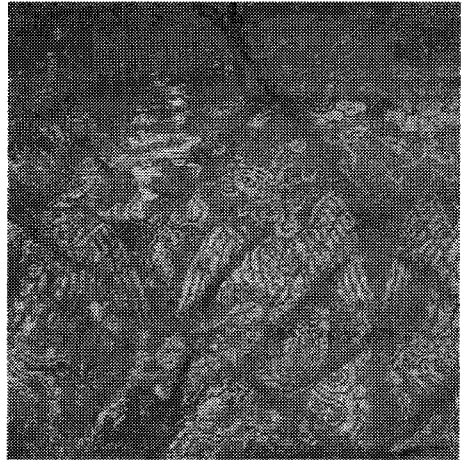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17-18세기 출토 유물에서 용이나 봉황무늬가 옷감의 소재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봉황무늬는 꽃과 새 무늬가 유행하였던 당시 유행경향에 따라 봉황도 다양한 꽃들과 함께 표현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장엄구에서는 2종류의 봉황 무늬가 3곳에 사용되었는데 첫째 종류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원형의 봉황과 사합여의 무늬를 격자로 배열하고 여백에는 특경, 생황, 은정, 서각, 연환, 반장 등의 보배무늬를 산재 배열하였다. 이들 직물은 금합을 쓴 보자기(금합보 1)와 은합을 쓴 보자기(은합보 4) 등 2곳에 사용되었다. 두 번째 종류는 〈그림 7〉에서와 같이 봉황 한 쌍이 구름을 사이에 두로 마주 보고 있으며 구름 위에는 희(喜)자가 연금사로 직금되어 있다. 무늬의 바탕에는 만자와 매화, 동백, 모란, 석류 등의 4종류의 꽃들이 짧은 가지에 연결되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충전된 느낌을 준다. 은합고임용 보자기로 사용되었다.

전자와 같은 원형의 봉황직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후자의 봉황과 유사한 조형성은 단국대 박물관에 소장된 광해군비(1576~1623년)의 당의용 직물⁶⁾을 비롯하여 김확의 유물⁷⁾ 등 17세기의 여러 출토복식에서 보인다. 광해군비 당의에는 〈그림 8〉에서와 같이 봉황이 연꽃, 국화, 매화, 모란 등의 4종류의 꽃 사이를 날고 있다. 17세기의 문헌인 『역어유해』와 『가례도감의궤』에서는 '천화문분'이라는 명칭이 자주 기록되었는데⁸⁾ 바로 이러한 무늬가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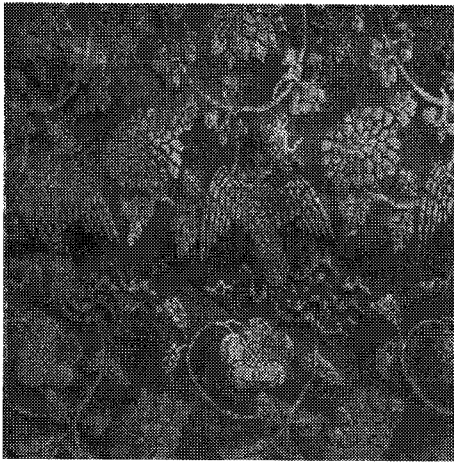
원형 봉황무늬 보자기〈그림 6〉의 안감에는 용무늬가 시문되었는데 〈그림 9〉에서와 같이 용을 주무늬로 했다기보다는 용을 원형으로 도안하여 보상화와 교대로 배열하였고 여백에는 여러 종류의 꽃이나 보배무늬를 산재형으로 배열하였다. 꽃의 종류로는 연꽃,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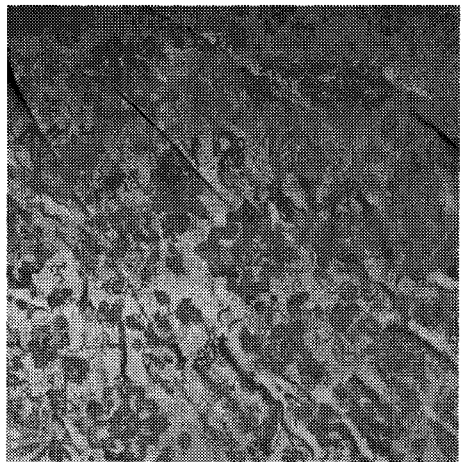
〈그림 6〉 금합보1 봉황·보배무늬,
낙산사 소장



〈그림 7〉 은합고임용1 봉황·사양화무늬,
낙산사소장



〈그림 8〉 광해군비 저고리 봉황·사양화무늬,
낙산사 소장



〈그림 9〉 은합보4 안 용·사양화 보배무늬,
낙산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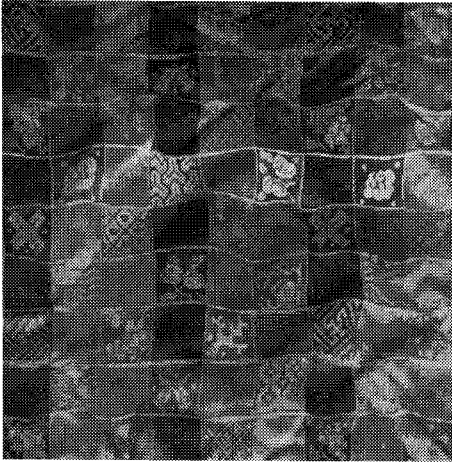
백, 국화, 모란의 사양화가 짧은 가지에 연결된 가지 형태로 도안되었고, 이보다 작은 크기로 생황, 귀갑, 전보, 금정, 은정, 보주, 보선, 만자 등의 보배무늬가 배열되었다. 또한 모란의 좌측에는 꽃을 따르는 나비를 작고 단순하게 도안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더하였다.

3. 기하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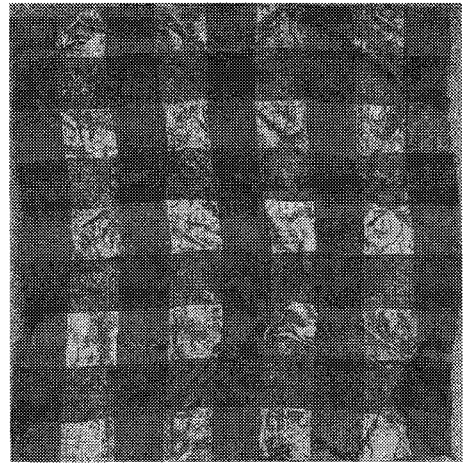
기하무늬는 인류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기초

적인무늬로 단순한 선과 면으로 구성되었다. 직물에서는 대부분 중심무늬 보다는 배경을 이루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크게 마름무늬, 귀갑무늬, 만자무늬, 금무늬, 격자무늬, 색동무늬 등이 많이 보인다. 본 장엄구 보자기에서는 만자무늬와 격자무늬가 시분되었는데 역시 이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의 보배무늬를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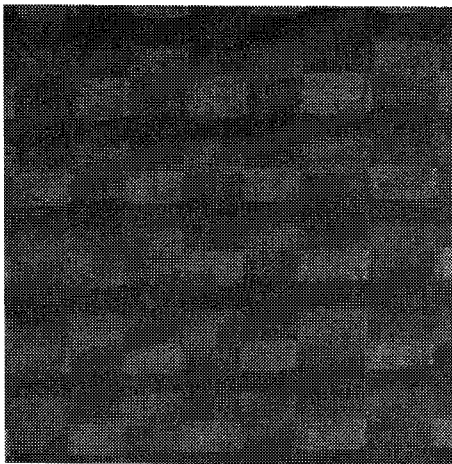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사리를 넣은 사리호를 감싸고 있는 보자기와 은함을 쓴 보자기(은합보 2)가 〈그림 10〉



〈그림 10〉 은합보2 겹 격자·보배무늬,
낙산사소장



〈그림 11〉 해인사 범보전 비로자나불 불복장,
해인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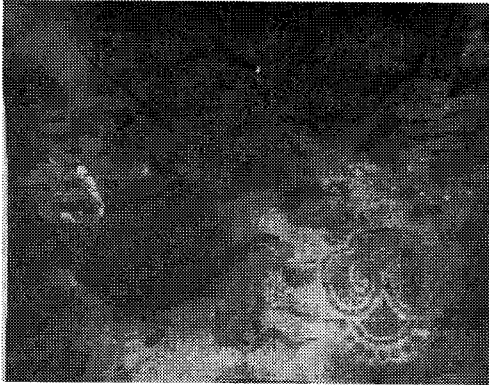
〈그림 12〉 조선 15세기 불복장직물,
개인소장



〈그림 13〉 은합보1 안 만자·보배무늬,
낙산사소장

에서와 같이 격자무늬 바탕에 각종 보배로운 꽃들과 기물을 시문하였다. 경사에 청색, 갈색, 녹색, 황색의 색사를 교대로 결고 위사에는 녹색, 소색, 연갈색의 북을 차례로 바꾸어가며 직조하여 격자형으로 구획을 나누었다. 구획이 나뉜 격자무늬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배무늬와 기하무늬, 과실과 꽃무늬[花果紋]가 들어있다. 보배무늬의 종류로는 산호, 쌍서각, 은정, 금정, 화주, 여의 등 6종류가 있고 기하무늬의 종류로는 불결, 사격만자, 연환, 만자, 소슬문, 마름모

등 6종류이며 과실과 꽃무늬로는 천도, 매화, 석류, 모란, 감, 연꽃 등 6종류의 꽃과 과일을 교대로 배열하였다. 이 무늬는 여러 색의 격자 안에 도합 18가지의 무늬가 집합된 색상과 구성이 특이한 도안이다. 조선시대 복식유물에서 발굴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충북대 소장의 청송심씨(1683-1718)의 수의 중 과두와 비선에 사용된 직물 무늬⁹⁾가 비슷한 구도로 이루어졌으며,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엔슈돈스(遠州緞子)라 부르는 직물¹⁰⁾과 구성 및 제작법이 유



〈그림 14〉 은합보3 겉 구름보배·회자·만자무늬, 낙산사소장



〈그림 15〉 안동권씨 원삼 '壽' 자 직금 부분, 경기도박물관소장

사하다.

이와 동일하지 않지만 불교 유물 중에는 〈그림 12〉와 같이 세종 13년(1431)에 복장되어 후령통에 넣은 직물 중에 격자무늬의 직물 조각이 발견되었으며,¹¹⁾ 〈그림 11〉과 같이 해인사 범보전 비로자나불의 복장품에는 성종21년(1490) 개금 시에 넣은 불복장 유물 중에는 백색, 남색, 홍색, 청색, 초록, 황색, 담홍의 7색으로 이루어진 조각보에 사리호를 쌓은 사례가 발견되었고,¹²⁾ 1415년에 조성된 내소사의 불복장 물에도 조각보가 발견되었다.¹³⁾ 이처럼 불교의 장엄구에서는 격자무늬의 직물을 사용하거나, 직접 조각보를 만들어 격자무늬의 효과를 내도록 한 사례가 여러 차례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격자무늬의 직물에 사리호를 쌓은 이유를 버려진 옷들의 조각을 108장 이어서 만들기 시작하였다는 불교 법복인 가사(袈裟) 만들기의 유래와 연관 지어 격자무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보자기에는 격자무늬 안에 각종 길상의 의미를 지니는 보배무늬, 기하무늬, 과일무늬를 시문하였다.

다른 한 종류의 기하무늬 은합을 쓴 보자기(은합보 1)의 안감에 사용된 것으로 〈그림 13〉에서와 같이 만자를 사선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도안하고 그 위에 방승, 산호, 여의, 전보 4종의 보배무늬를 한줄씩 엇갈리게 배열하였다. 만자무늬는 원시 고대사회의 우주관을 상징하는 '十'의 모양에 날개를 달아 사방으로 뻗어가는 즉 우주의 운행을 연상시키는 형태

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대아(大我), 심체(心體)의 영속성을 뜻하는 불교의 상징으로 더 잘 알려졌으며 '장지문' 혹은 '사격자문'이라고도 한다.

4. 구름무늬

구름무늬가 중심무늬로 들어간 것은 1점 뿐인데 은합을 쓴 보자기(은합보 3)에 사용되었다. 구름의 형태가 일반 복식에 시문된 형태와는 달리 독특한데 〈그림 14〉에서와 같이 여의형의 구름 상단에 둥근 선을 두르고 그 위에 9개의 점을 찍어 해의 모습을 상징하였다. 이런 형태의 구름은 덕수궁이나 창경궁의 어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구름무늬비단에는 회자와 만자를 연금사로 직금하여 가로 방향으로 반복 배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신라에서 문자금을 짠 기록이 있으나 실제로 문자가 직조된 옷감이

발견된 것은 17세기부터이다. 숙종 15년(1689)에 사망한 이단하 부인이 입었던 원삼에 여러 종류의 길상식물무늬와 함께 수, 복자를 직조하였고¹⁴⁾ 1722년에 사망한 안동 권씨의 원삼과 배개용 옷감에도 〈그림 15〉에서와 같이 연금사를 사용하여 수자와 회자를 직조한 금선단이 나타나는 등¹⁵⁾ 문자가 옷감의 무늬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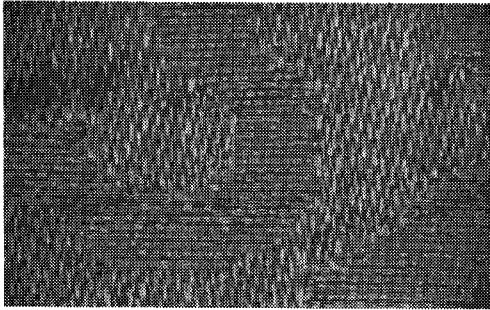
IV. 직물의 조직 및 종류

이 사리장엄구에 사용된 11점의 옷감은 모두 무늬가 있는 견직물이다. 직물의 종류는 단(段)과 능(綾)이며 능 위에는 금박을 가늘게 잘라 명주실에 맡아 감은 연금사(撚金絲)로 희(喜)자와 만(卍)자를 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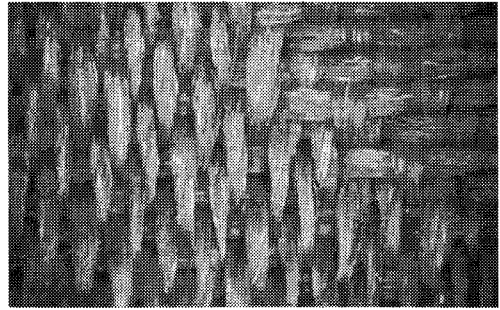
(織金)하였다. 직물조직 확대사진은 실물크기의 10-15배 정도를 저배율로, 40-45배 정도를 고배율로 표시하였다.

1. 단(段)

단은 우리가 흔히 양단이나 공단 등으로 부르는



<그림 16> 금합보1 5매수자직 저배율



<그림 17> 금합보1 5매수자직 고배율



<그림 18> 사리호보1 바탕 5매수자직 저배율



<그림 19> 사리호보1 무늬 위능직(1/4) 저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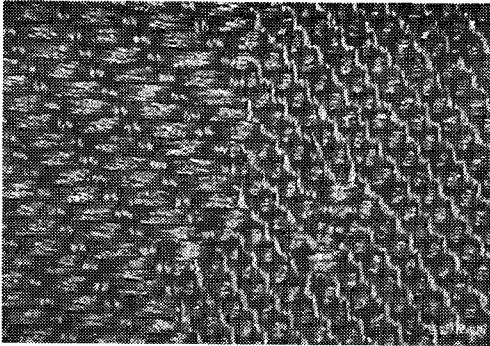
<그림 20> 사리호보1 무늬 위능직(1/4) 고배율

옷감으로 5매 수자직, 혹은 8매 수자직으로 직조한다. 무늬가 없는 것은 소단(素段), 무늬가 있는 것은 문단(紋段), 화문단(花紋段)이라고 한다. 이번 장업구에 사용된 보자기 직물 11점 중 2점을 제외한 9점이 단직물이며 그 중에 8점은 <그림 16><그림 17>에서와 같이 수자직으로 직조하였고, 5매 경수자 바닥에 무늬는 5매 위수자로 직조한 정반조직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단직물은 경사와 위사를 동일한 색상으로 하였으며 경위사의 방향을 달리하여 음영에 의한 은은한 무늬가 표출된다. 그러나 1종류(사리호보1, 은합보2)는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달리하여 무늬가 도드라지게 직조하여 다른 문단과는 달리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경사에 청색, 갈색, 녹색, 황색의 색사를 교대로 걸고 위사에는 녹색, 소색, 연갈색의 복을 차례로 바꾸어가며 직조하였다. 따라서 경사 색에 따라 세로로 색동 줄이 생기면서 동시에 위사 색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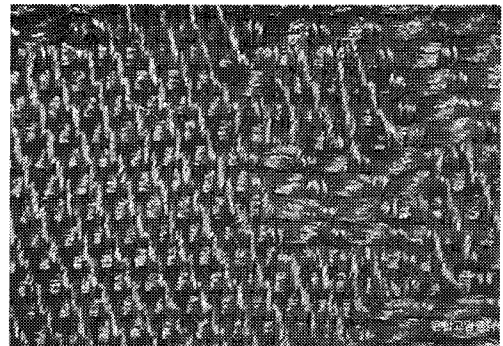
라 가로로 구획이 나뉘어 격자를 이루게 된다. 이처럼 여러 색으로 직조된 단직물이 문헌에 기록된 채단(綵段)이라 하겠다. 채단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림 18> <그림 19>에서와 같이 바닥을 5매 경수자직으로 직조하였고 무늬 부분은 5매 위능직(1/4)으로 직조하여 바닥과 무늬 모두 수자직만으로 된 단직물과는 차이를 보인다.

2. 능(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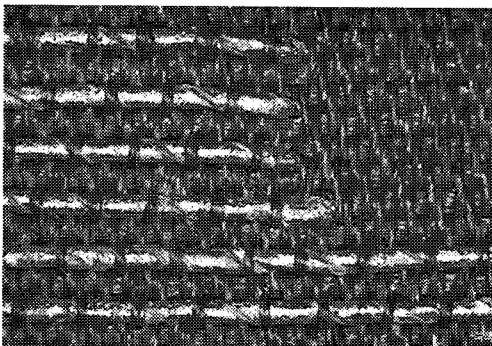
경사와 위사의 조직점이 직물 표면에 사선으로 나타나는 조직을 능직이라 하며, 능직으로 짠 견직물을 능이라 한다. 무늬가 없는 것은 소능(素綾), 무늬가 있는 것은 문능(紋綾), 화문능(花紋綾)이라고 한다. 평직의 명주에 비하여 광택이 있고 탄력성이 좋다. 조선시대 출토 직물은 단직물이 단연 많이 출토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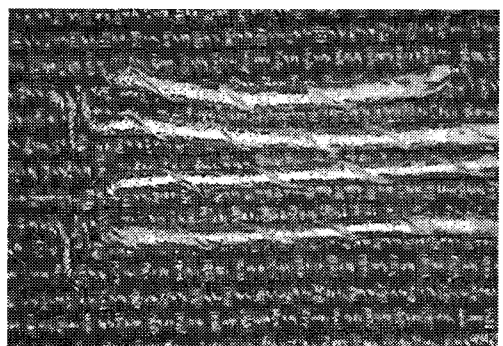
<그림 21> 은합보3 겉 바탕 변형능
무늬 5매위능(1/4) 저배율



<그림 22> 은합고임용1 바탕 3매경능
(2/1) 무늬 5매위능(1/4) 저배율



<그림 23> 은합고임용1 금사 겉쪽 고배율



<그림 24> 은합고임용1 금사 안쪽 고배율

지만 비교적 능직물의 비율이 높아진 시기는 17세기이다¹⁶⁾ 이번 장엄구에 사용된 보자기 중에도 은합을 쓴 보자기(은합보 3)와 3)와 은합고임용 보자기(은합고임용1)가 능직으로 직조되었다. 은합을 쓴 구름무늬의 보자기는 <그림 21>에서와 같이 바탕이 변형 3매 경능직이고 구름무늬 부분은 5매 위능직(1/4)으로 직조하였다. 은합고임용 봉황무늬의 보자기는 <그림 22>에서와 같이 바탕이 3매 경능직(2/1)이며 무늬 부분은 5매 위능직(1/4)으로 직조하였다. 그런데 두 직물 모두 부분적으로 연금사를 사용하여 수자와 만자를 직금하였다. <그림 23>에서와 같이 연금사는 바탕위사를 한 줄씩 건너가며 위능직으로 직조하였다.

V. 결론

사리장엄구는 모두 11점의 보자기에 싸여있었으며 가장 바깥에 노출된 청동합을 쓴 보자기만 삭아서 부서진 상태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단지 청동합의 한쪽이 찌그러진 상태이므로 청동합 바로 속에 들어 있는 은합 쓴 보자기 4점 중에 바깥 쪽 순서대로 찌그러진 공간을 통하여 빛이 들어온 부분에 탈색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물론 은합 내부에 들어있었던 금합과 사리호를 쓴 보자기는 탈색 현상이 없다. 탈색 현상은 특히 푸른색 계통이 많이 사라졌다.

삭아 부서진 청동합 보자기를 제외한 보자기 10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점의 보자기 중 겹보자기가 5점이므로 직물 편은 모두 15점이 되는데 이중에 동일한 직물이 반복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11 종류이며 모두 무늬가 있는 견직물이다.

무늬의 유형은 꽃무늬, 용·봉황무늬, 구름무늬, 기하무늬의 4 타입으로 구분하였다. 꽃무늬 유형으로 구분된 것이 5종류로 가장 많고, 용·봉황무늬의 유형이 3종류, 기하무늬가 2종류, 구름무늬가 1종류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각종 보배무늬는 꽃무늬, 용·봉황무늬, 기하무늬 등의 보조무늬로 사용되었고 회자와 만자의 문자무늬도 부분적으로 직금되었다. 옷감에 시문된 꽃이나 봉황무늬의 조형성에서 17세기 직물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격자무늬와 구름

무늬는 다른 출토직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하였다. 오색의 격자무늬 단은 조선시대 의복에 즐겨 사용된 직물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불복장 직물에도 이와 유사한 무늬나 조각보가 여러 차례 발굴된 사례로 볼 때, 여러 조각을 이어 만드는 스님의 법복인 가사(袈裟)와 연관된 종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장엄구에 사용된 11 종류의 견직물 중, 9점이 단(緞)이며, 2점이 능(綾)이다. 9점의 단 중에 8점은 모두 5매 경수자 바닥에 무늬는 5매 위수자로 직조한 정반조직이며, 무늬의 표현방법은 경사와 위사를 동일한 색상으로 하되 직조한 방향을 달리하여 생긴 음영에 따라 은은하게 무늬를 표출한다. 그러나 한 종류는 다른 문단과는 달리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달리하여 무늬가 도드라지게 직조하여 화려한 느낌을 준다. 2점의 보자기가 능직으로 직조되었는데 은합을 쓴 구름무늬의 보자기는 바탕이 변형 경능직(1/1, 2/1)이고, 구름무늬 부분은 5매 위능직(1/4)으로 직조하였다. 은합고임용 봉황무늬의 보자기는 바탕이 3매 경능직(2/1)이며 무늬 부분은 5매 위능직(1/4)으로 직조하였다. 그런데 두 직물 모두 부분적으로 연금사를 삼입하여 수자와 만자를 직금하였다.

이번 직물유물들은 탑 안에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보관되었으므로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교적 상태가 좋고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종교적 의미는 물론 복식사 분야에서도 17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였던 직물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앞으로 낙산사에서는 이 직물을 박물관 속 수장고에 넣어 두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러한 직물을 재현하여 낙산사의 중요한 문화컨텐츠의 자료로 활용하여 불교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김영숙 (1997). *조선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혹석사 아미타불 복장직물-*. 도서출판미술문화.
- 2) 법보종찰 해인사 (2008). *대적광전 법보전 비로지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pp. 64-79.
- 3) 조효숙 (2008). 조선시대 직물의 시기감정을 위한 꽃무늬 조형특성 연구. *服飾*, 58(5), p. 91.

- 4) 조효숙 (2007). 김확합장요 출토직물연구.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 140.
- 5) 조효숙 (2008). 앞의 책, p. 98.
- 6)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② 복식·자수편, pp. 106-107.
- 7) 조효숙 (2007). 앞의 책, p. 141.
- 8) 眞宗孝順后嘉禮都監儀軌, 譯語類解.
- 9) 충북대박물관 (2006). 한성관윤 김원택 묘역 출토복식. 충북대박물관, pp. 48-49.
- 10) 北村哲郎 (1988). 日本の織物. 原流社, pp. 58-59.
- 11) 조효숙 (2006). 한국의 무늬-직물편-. 문화재연구소편, p. 472.
- 12) 박윤미 (2008). 해인사 비로지나불 복장직물의 특징.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조사보고서. 법보종찰해인사·문화재청, pp. 64-79.
- 13) 박윤미 (2007). 내소사 복장직물의 용도규명 및 특성. 2007 상설전. 불교중앙박물관, pp. 104-109.
- 14) 문화재청 (2006). 앞의 책, pp. 125-126.
- 15) 조효숙 (2002). 의원군 일가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p. 181-182.
- 16) 이은주의 2인 (2005). 길짐승홍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178-217.
- 17) 박윤미 (2008). 조선시대 문직물의 시대별 제작특성. 服飾, 58(5), p. 154.